



21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 맞은편 골목에 폐업한지 10년 이상 지난 유흥업소들이 방치돼있다.

/뉴스

개발은 뒤편·방치는 정면... 역세권 정비 시급

부끄러운 관문 下

‘호남의 관문’ 광주송정역을 찾는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역 광장과 주변 도심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대적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역세권을 개발하는 KTX투자선도지구도 역 주변 위주로 추진되고, 방문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정면 광장과 송정동 일대 구도심은 구조적 한계에 놓였다는 평가다.

1일 광주 광산구와 한국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광주송정역은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한 2015년 4월 이후 광주역을 대신해 호남의 관문이자 고속철도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수도권과 호남을 잇는 교통 관문이라는 특성상 이용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역과 주변 인프라의 물리적 수용 능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광주송정역 역사 연면적은 약 5700㎡로, 전국 주요 KTX 거점역과 비교해 현저히 작다. 동대구역(2만6794㎡)의 5분의 1, 부산역(5만4920㎡)에 비해서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광장 면적도 동대구역(2만5638㎡)이 7.1배, 부산역(1만6662㎡)이 4.6배 더 크다. 편·부대시설 역시 동대구역 47개, 부산역 52개인 반면 송정역은 6개뿐이다. 지역적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비좁고 낙후한 역사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은 사업비 386억원을 투입해 역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역사 면적을 5700㎡에서 1만 1000㎡로 늘리고, 넓은 대합실·승강장·편

이용객 급증에도 광장·구도심 정비 ‘공백’

KTX 선도지구 정비 유흥업소 7곳 빠져 국가철도 거점 차원서 종합적 정비해야

의시설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증축 이후에도 타 지역 거점역에 비해 규모가 작고, 역 외부 공간과 주변 인프라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광주송정역 광장은 타 지역 거점역과 비교해 초라할 정도로 협소하지만, 이번 확장 공사 대상에서 노후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대규모 광장과 체류형 공간을 갖춘 타지역 역과 달리 방문객이 머물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역 앞 송정동 일대 구도심 환경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역 정문에서 처음 맞닥뜨리는 모습은 낡은 여관가와 슬럼화한 옛 집창촌, 시·군 단위 읍내 거리를 연상케 하는 거리 풍경이다. 호남의 첫 인상이라는 점에서 도시 이미지 훼손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진 중인 KTX 투자선도지구 정비사업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선도지구 사업은 시행자인 LH가 광산구 송정동과 송촌동, 장록동 등 송정역 주변 55만8158㎡(약 17만 평) 부지에 총사업비 5943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송정역 앞 옛 집창촌 밀집 구역에 ‘올드뉴스퀘어’를 조성하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 생활환경 거점으로 육성, 역사 주변 구역은 연구 지원시설과 주거·상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정비사업은 역 정면부가 아닌 후면부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정문 앞에 들어설 ‘올드뉴스퀘어’의 경우 유흥업소 상가 7곳이 정비구역에서 제외됐고, 2016년 시작한 송정역세권 도시재생사업도 지난해 끝나 이 일대 추가 정비도 물건너갔다.

광산구는 역 주변 노후 여관가 철거와 광장 확장 등 환경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다만 토지 보상과 사업비 부담이 커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여관가 철거와 광장 확장에만 1000억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광주송정역 일대 정비는 개별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사 확장과 역세권 개발, 구도심 환경 개선을 하나의 공간 전략으로 묶을 수 있는 상위 조정 체계 없이는 ‘호남의 관문’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송정역을 국가철도 거점 차원에서 재정 의하고, 정면부 광장과 구도심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진다.

정은성 호남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송정역은 뒤편 대규모 역세권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용객이 처음 마주하는 정면부 광장과 보행 동선, 낡은 숙박 시설 밀집지 등 ‘첫인상 구간’을 함께 정비하지 않으면 전체 재생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부

‘신에너지·인공지능’ 품은 전남, 붉은 말의 해 비상한다

신재생에너지 통해 기본소득 공유 모델 조성

첨단산업 전초기지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을 품은 전남도가 역동과 도약을 상징하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첨단기술과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결합, 지역의 미래를 이끌 압도적 성장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신인 앞바다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지정, LS그룹의 해상풍력 부품 시험센터와 전용 항만 구축, 전남 전역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지까지 성공하면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인공태양 연구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을 선도할 국가적 프로젝트로 전남의 위상을 한단계 끌어올릴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SK가 추진하는 초대형 AI데이터센터, 삼성SDS 컨소시엄의 국가컴퓨팅센터를 품으며 대한민국의 AI 인프라의 핵심 거점으로도 부상했다.

남은 과제는 성과를 제감으로 바꾸

는 일이다.

전남도는 올해를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과감히 확대한다. 영농형 태양광을 대폭 확충, 농가소득을 5배 이상 높이는 한편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도민과 에너지 기본소득을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과학기술 진흥 원년으로 선포, 과학으로 먹고사는 전남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글로벌대학으로 지정된 국립목포대·순천대와 세계 유일 에너지 특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와 손잡고 인공태양 연구소를 비롯해 AI·에너지·우주항공·첨단소재 등 미래 첨단기술 개발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를 키우고, 청년이 머무는 혁신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첨단 과학기술

을 기반으로 권역별 AI데이터센터 클러스터와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도 만든다. 이는 글로벌 첨단산업 기업을 끌어들이는 마중물이자 전남을 첨단산업 기지로 탈바꿈 시키는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국가기반산업인 석유화학·철강·조선산업 등 제조업과 농수축산업에도 AI 대전환의 흐름을 확산시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

김영록 도지사는 “꿈꾸는 자만이 미래를 열고, 도전하는 자만이 길을 만들 수 있다”며 “원대한 꿈을 품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지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와 AI라는 양 날개를 단 전남이 새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선도지역으로 비상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권철 기자

마제촌·도마산·안마도... 전남, 말 지명 216곳 ‘전국 최다’

전국 820여곳 중... 마을·섬·산 등 순 많아

전남 나주시 성북동 마제촌(馬蹄村). 마을의 지형이 마치 말의 굽과 같이 생겼다 해서 붙여진 고을 이름이다. 담양군 월산면에 자리한 도마산(徒馬山). 산의 생김새가 달리는 말과 같다고 해 붙여졌다. 장흥군 회진면의 ‘대마리도’라는 섬은 큰 말머리를 닮았다는 뜻에서 비롯됐다.

전남도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말(午)의 해를 맞아 전국에 고시된 지명 10만여개를 분석한 결과 말 관련 820여곳의 지명 중 전남이 216곳으로 가장 많았다고 1일 밝혔다.

병오년은 60간지 중 43번째로 ‘붉은 말

의 해이다. 불의 기운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말머리가 결합한 병오년은 역동성과 도약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해로 꼽힌다. 십이지 가운데 말은 일곱 번째 동물로, 오시(오전 11시~오후 1시)를 나타낸다.

예로부터 신화와 전설의 주제로 자주 등장하는 말은 신성한 영물이자 힘과 역동성을 상징하는 동물로 조상들의 삶과 문화에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런 이미지가 지명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전남 지역 말 지명은 마을이 12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섬 44곳, 산 23곳 등의 순이었다.

시군별로는 신안군이 32곳, 진도군·완도군·해남군이 각각 14곳으로 뒤를 이었다. 말 지명이 가장 적은 곳은 곡성군(3곳)이었다.

말의 모양과 관련한 지명이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신안군 도초면 만년리의 섬 모양이 말처럼 생겼다고 해 ‘말섬’이라고 부른다. 영광군에는 섬 지형이 말 안장과 닮은 ‘안마도’가 있다.

고시된 지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는 국토정보플랫폼 지명사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태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명은 지역 유래와 역사성, 전통 등이 담긴 중요한 자산”이라며 “올바른 지명을 정비하고 적극 알리는 노력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광주경찰, 치안정책 시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31개 항목

광주경찰청은 20일까지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치안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 중심의 일방적인 치안 활동에서 벗어나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치안 서

비스를 제공한다. 취지다.

설문 내용은 전반적 안전도와 범죄예방·대응, 수사역량 강화,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총 7개 분야 31개 항목이다. 조사 결과는 올해 치안정책 수립과 운영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설문조사는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누리집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식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치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보다 안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